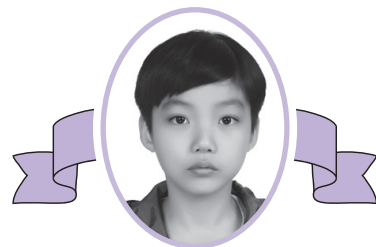


동상





기억이 공존하는 산곡 1동



이종수 | 인천 부마초등학교 6학년

“종수야, 오늘 우리 동네 한 바퀴 돌아볼까?” 지금보다 코로나19가 덜 심했을 때 가족들이 함께 동네에 있는 맛집에 간 다음 엄마가 하신 말씀이다. 오랫동안 외출을 안 해서 답답해하던 우리들은 엄마 말씀대로 동네를 돌아보기로 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예전 외할아버지의 가게였다. 지금은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외할머니는 다른 곳으로 이사 가셔서 가게는 폐업한 상태지만, 내가 산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다녔을 때 하원하고 외할아버지의 가게에서 놀았던 기억이 있다. 할아버지 가게 앞의 방앗간은 아직도 운영 중인데, 방앗간 사장님과 외할아버지께서 친하셔서 방앗간에 가서 음식도 먹고 놀았던 기억이 난다. 친할머니도 고춧가루가 필요하실 땐 이 방앗간에 가시는데, 한 방앗간에 외할아버지랑 친할머니가 모두 다니셨다니 참 재밌게 느껴졌다. 이번에는 시장에 갔다.

재개발 예정으로 인해 운영되는 가게들이 거의 없었고, 좋지 않은 냄새도 났다. 예전

에는 산곡동에서 가장 북적거리는 시장이었다는데, 천장에 찢어진 비닐이나 떨어져 있는 간판을 보니 상상이 되지 않았다. 시장에서 나와 오른쪽을 보자 가림벽이 세워진 건물이 보였다. 건물 벽면에 무섭게 생긴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어서 엄마한테 여쭙보았더니 예전에는 슈퍼마켓이었고, 그 이전에는 극장이었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예전에는 극장 상영작 포스터를 직접 그렸는데, 그것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라고 하셨다. 설명을 듣고 다시 보니 무섭게 느껴지던 그림이 웃기게 보였고, 그림을 너무 못 그린 것 같았다. 전에 우물이 있었다는 화단을 지나 문방구점에도 갔다. 그 문방구는 외할아버지와 함께 갔던 기억이 있는데, 엄마도 초등학교(엄마도 많이 늙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에 다니실 때 이 문방구점을 다니셨다고 하셨다. 아직도 운영 중이라 기념품도 살 겸 들어갔는데 가게 주인아저씨가 안 바뀌셔서 반가웠다. 그리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진 물건들도 있어서 너무 신기했다. 엄마도 재미있으셨는지 그런 물건들을 엄청 사셨다.

엄마는 여러 가지 기억이 나셨는지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나도 옛날 생각이 떠올라서 재미있었다. 동시에 이곳이 개발 예정이라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슬프기도 했다. 워낙 낡은 집들이 많아 개발되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런 추억을 그냥 없애 버리고 잊게 되는 건 아쉬웠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와 추억이 담긴 곳은 그냥 재개발하기보다 보존을 일부라도 했으면 좋겠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보았던 것처럼 골목 일부, 가게 일부를 보존하고 영화 ‘인터스텔라’처럼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인터뷰를 비디오 형식으로 만들어서 전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도 남겨서 여러 세대들이 기억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내가 엄마의 기억을 들으며 재밌어했던 것처럼 다음 세대들도 나의 기억을 들으며 재밌어하면서 자신들의 기억을 나누는 공간을 만들게 되면 좋겠다.